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은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나누는 마음(분별심)입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두 분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고 보니 ‘이미 일체 중생이 깨달아 있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 말씀이 결코 선문답이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순간 이미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진 것이기에 일상 속에서 나와 남, 생각의 대상을 분리하지 않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2월 24일 조계사 극락전, 조계청년회(회장 정우식)의 수행법 대강좌 결재 중 ‘생활인의 참선법’을 주제로 진행된 대호 스님(제주 원명선원 회주)의 참선 법회는 일방적인 설법만이 아닌 문답형식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간단하게 일념으로 사는 참선이 불교다’, ‘참선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법’ 등 선에 대한 기본원리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그때그때 수련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의문점은 바로 풀어주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의 이 설법에는 ‘생활선’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의 일관된 법문의 요지가 녹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은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이기에 자성불(自性佛)의 법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본래다)’는 인간의 정체를 드러낸 이 한 마디는, 이 말을 뱉지 않자 팔만대장경의 모든 법문보다 더 중요할 만큼 그 뜻이 대단히 큼니다. 이 한 마디를 알리주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시작된 거죠.”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회두(회개)하는 이미 깨달아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더 구할 것이 없는 원만 구

족한 존재를 말한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고통할 것 없이 당당하고, 미혹함이 없는 지혜로 자신과 만물을 보기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번뇌의 굴레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게 참선 공부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믿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제자나 후대의 인류를 위해 부처님은 맑은 비유와 예를 들어가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지를 씻어주고자 설법하셨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면, 내면



29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명선원의 ‘삼매체행 선수련회’.

회두는 주객 대상 초월한 ‘의심’

참선은 분별로 인한 속박 벗는 길

을 등지고 밖을 향해 자신 이외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감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모른 채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고통과 암흑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무지의 행군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 안에 있으며, 이미 깨달아 있는데도 무명으로 인해 갈등하고 분별하는 것은 왜일까요.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생각하여 헤아림) 분별에 있으며, 분별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을 비뚤어



대호 스님

지게 보는 데 핵심이 있다. 그래서 대호 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람 분별심을 버리고 현실에 처한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싶다면 ‘나와 너’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한다.

무상한 현실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냉정하게만 볼 수 있다면 본래 깨달음으로 가득차서 도둑이 들어주는 발동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조사선의 수행은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본질의 변화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바탕을 바로 보지 못하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수행이라 한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의 삶과 활동은 어떠한가. 스님은 깨달음은 누구나 일상의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금도 왜곡하거나 꾸민 것이 아닌,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먹는 평상심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평상심을 실천하는 한 방법. ‘원하는 즐거움이 다가오더라도 좋아서 당기지 마세요.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싫어서 떠밀지 마세요. 즐거움과 고통을 들어다 보고 들어다 보아, 두 가지 마음의 뿌리가 뽑혀서 사라지더라도 또다시 살펴보세요. 좋고 싫은 마음이 끊어질 무심기 될 때까지.”

“자성불의 법력을 쓰고 살라”는 가르침 역시 스님이 강조하는 생활선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자성불로 삼는다. 자성불의 법력으로 사는 사람은 장애가 없습니다. 법력은 깨달음의 삶이자 자신을 찾는 삶입니다.”

대호 스님은 “참선은 상대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타의 분리에서 오는 상호 대립, 자신과 대상(나와 너, 나와 집안, 나와 일, 나와 이 세상)을 나누고, 나누는 데서 오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유 해탈”이라며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깨달은 부처로 살아가자”며 법문을 갈무리 했다.

1976년부터 29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에 ‘삼매체행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대호 스님은,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문답식 방법으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키는 수련회를 운영해 그동안 1만5천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했다. 원명선원 (064)755-3322

깨달음의 생활 문답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간단한 것이다.
왜 간단하나?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불교다
왜 계산을 하지 않느냐?
나와 네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다.
왜 나와 네가 나누어지지 않느냐?
나와 너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불교다.
어떻게 단순한 것이 불교다.
간단하므로 저절로 일념이 된다.
일념으로 사는 것이 불교다.
또 참선이다.
참선이 불교다.
일념으로 모든 속박과 제약에서 벗어나나.
일념으로 현실을 초월한다.
현실에 처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산다.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일하면서 일념으로 보고 일념으로 듣고 일념으로 느끼면
하루가 일념에 불과하다.
하루가 한 순간에 불과하다.
백년 일평생이 한 순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일념이면 무심이다.
일념이면 해탈이다.
일념이 깨달음이다.
내가 부처가 되어 사는 길이다.

나와 네가 갈라져서 둘이 아닌데 왜 계산을 하겠는가?
그러나 나와 너, 나와 가족, 나와 직장, 나와 일, 나와 이 세상이 갈라지면 내 몫을 끊임없이 계산해서 챙겨야 한다.
나와 네가 갈라지는데서 모든 일이 뒤엎어져서 사바세계가 생기고 범부의 세계가 나타난다.
나니 너니 계산한다 보면 뜻이 어긋나 잘 해주지 못하고 의가 상해서 서로 등진다.
사서 만나면 괴로워서 싫어진다.
원수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수가 되고 애인이 원수가 된다.
서로 좋게 잘살아보려고 애인이 되었는 데 원수가 되면 못쓰지.



낮,밤 가리지 말고 평생 참구하라

경허 스님

의심하되 경에서 찾지 말고 이렇고 들면 회두에 힘 생겨

한번에 놀아 태평양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리고, 다시는 들어 말하지 마라. 팔만사천 미세한 생각 머리를 잡아 단념에 끊어 버리고, 본래 참구하던 회두를 들어 일으키되, 맨 뒤 한 귀절에만 힘을 써서 들어 일으키어 들며 오고 들며 가다가 회두만 앞에 나타나서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지며, 고요한 가운데나 시끄러운 가운데나 들지 않아도 들어지거든 바로 이때에 의심의 문장, 말로 말하는 삼매 등을 가져다



경허(鏡虛, 1849~1912)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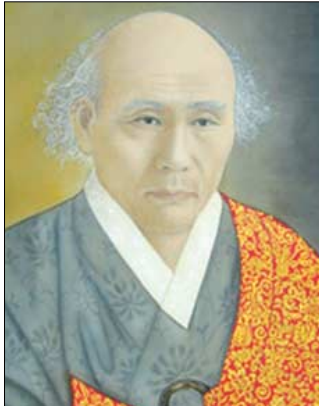
출세 대장부가 마음을 내고 결정하는 뜻을 세웠으면, 평생에 깨달아 얻은 것, 풀이 알아 얻은 것, 일체 불변, 네 귀절 여섯 귀절의 문장, 말로 말하는 삼매 등을 가져다

백지로 돌아 가면 자유 얻게 돼

만공 스님

무념처 들면 참나 볼수 있어 미련 남는다면 참선 어려워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란 회두를 의심하였는데, 이 회두는 의심이 두 개로 갈라지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회두를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하나는 무엇인가?” 의심하여 가되, 의심한다는 생각까지 끊어질 적적(寂寂)하고 성성(惺惺)한 무념처에 들어가야 나를 볼 수 있게 되나니라.
“하나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 정신 영혼도 아니요 마음도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참선법은 옛부터 있는 것이지만 중간에 선지식들이 회두드는 법으로 참선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수많은 도인이 출현하였나니, 회두는 1700여 개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좋은 것이니 가히 좋아 버리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은 각각 뜻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서 눈알을 잡아 비비어 정진하는 가운데 다시 더 정진하며, 옹매한 곳에 다시 더 옹매하여 맺을 맺듯 함에 밝아 부딪치면 온갖 것이 깨달아 질 것이니 여기에 이르렀거든 바로 선지식을 친견함이 좋으니라. 이십년 삼십년을 못지 말고 물가에나 숲 아래서 깊이 성스러운 태이를 기를지니라.

하늘 옹을 추천하여 낸다면 감히 사람들이 함을 향하여 큰 입을 열고, 큰 말씀을 하며 금강권을 삼켰다 토했다 자재하며 가서 찌르는 숲 가운데라도 팔을 흔들고 지내 나올 것이며, 한 생각 가운데에 사방세계를 삼켜 버리듯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토해 낼 것이니 만일 여기에서 이르렀다면 바야흐로 너의 이마에 노사관을 쓰고 보신(敝身) 부처님과 화신(化身) 부처님 머리에 앉았다고 허락하리니의 후, 그러하지 못하거든 낮에도 참구하고 밤에도 참구하여 포탄 높이 불에 급히 눈알을 붙여 보이라.

이것이 무엇인가?
만약 이 회두가 들어도 일으켜지지 않고 회두가 식어져서 답답히 재미 없을 때에는 나지막이 소리를 내어 이렇고를 잊달라 세 번쯤 들면 회두가 문득 힘이 있어짐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바로 힘을 쓰기

사자(使者)의 눈도 피할 수 있나니라.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일체가 멸하나니라. 내 한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이 곧 우주의 건립과 파괴요, 인생의 생사니라.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르렀다 함은 공집이 언의 마음을 지저귀는 것이니라. 공부가 잘 된다고 느낄 때 공부와는 별쳐 어긋난 것이니라. 공부에서도 공부해 가는 것을 증명(證驗)하여 선생을 삼을 것이니라. 꿈도 없고 생시도 없이 잠이 폭 들었을 때에 안심일명처(安心立命處)를 어디에 두는 지 알아야 하느니라.

꿈이라 하는 것은 업신(業身)의 동작인데, 깨어 있을 때는 생각만으로 헤매다가 잘 때 업신이 제 몸을 나누어 가지고 육신이 하면 행동을 짓는 것이니라. 꿈과 생사가 일여(一如)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보다도 이 공부에 할 일이 없다는 결정적 신심부터 세워 하나니라. 오전(悟前)이나 후후(悟後)나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나니라.

자신을 믿어야 大道 이룰수 있다

한암 스님

외불(外佛), 모래로 밥 짓는 격 차별의 생각 계고 헤아림 경계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불과(佛果)를 증득하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이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서(一段大槓)의 인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히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겁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얻는다. 오직 바라건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아서 다시는 실패 그들에게



한암(漢巖, 1876~1951) 스님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參)이란 합(合)함이니, 자성이 합하여 청정한 마음을 보양(保養)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음이다. 오직 바라건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아서 다시는 실패 그들에게

사용하므로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趙州)의 ‘무자(無字)’와, ‘물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와, 동산(洞山)의 ‘마삼근(麻三斤)’과, 운문(雲門)의 ‘마른 톱 막대기’ 등 말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회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서 소에 앉아 중풍이를 박지 못할 곳까지 끊임하듯 하여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만 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 사람이 말한 ‘잡독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함이니 학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회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회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북 열리어,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유교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 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 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인등용 LED전구



연등용 LED전구

▶ 제품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필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 제품특징

- 일반 소켓 220V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쏘출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기열 특3호)
TEL : (02)2266-9098, 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